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양반 상놈을 구분하는 반상(班相)의 법이 엄격하던 시절 양반들이 백정 김 씨네 푸줏간에 들어왔다. 한 양반이 "이봐 백정, 쇠고기 한 근 쥐" 했고 다른 양반은 "이보게 김씨, 나도 쇠고기 한 근 주시게" 했다. 백정은 말없이 쇠고기 한 근을 달아 먼저 양반에게 줬다. 그리고 다른 양반에게는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하며 육질 좋은 고기를 공손히 건넸다. 먼저 양반이 "왜 고기가 다르냐?"며 화를 내자 백정은 이렇게 답했다. "그쪽은 백정이 자른 것이고 이쪽은 김 씨가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며 어! 다르고 어! 다르다 하였다. 이왕이면 좋은 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은 한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존댓말 쓰기를 생활화했더니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날이 갈수록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 왕따가 없어지고 다름 없는 날이 290여 일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나무가 잘 못 자라 쓸모없게 됐을 때, 톨 대신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나무를 향해 증오와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우리 널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려!"... 나무에 상처가 될 말을 계속 하면 나무는 시들시들 앓다 말라죽는다고 한다. 독이 들어 있는 인간의 말은 이렇게 무섭다.

작년 어느 프로 축구 구단에서는 화분 두 개를 놓아두고 하나는 칭찬을 하고 하나는 나무랐더니 칭찬을 먹고 자란 나무는 곧게 자라며 나무 잎도 무성하고 꽃도 화사하게 피었는데 꾸중을 듣고 자란 나무는 옆으로 뻗어버려서 자라고 꽃도 한 두 송이가 겨우 피는 것을 직접 보고는 서로에게 꾸중보다는 격려를 하며 그 선수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작년 국내 프로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었다.

어느 우유 배달원의 이야기는 일상의 흔한 이야기라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우유를 먹던 집이 미수금이 몇 달 밀린 채로 중지가였는데 매달 미수금 지로용지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중지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로용지를 다시 넣으며 지로용지에 포

스트이트으로 이렇게 써서 붙였다. '헤어지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꼭 임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날 폰 메시지가 왔다. '그동안 바빠서 임금을 못시켜서 미안합니다.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둘 테니 내일 아침 가져주세요.' 다음날 아침 그 집 우유 주머니에는 미수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또 미수금이 몇 개월 밀려있는 교회에는 지로용지를 넣으며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 붙였다. '우유 대금이 많이 밀렸네요. 무척 바쁘신 모양이네요. 이번 달에는 꼭 임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아멘.' 그날 그 교회에서 대리점으로 전화가 왔다. 임금하려고 하니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날 바로 통장으로 우유대금이 입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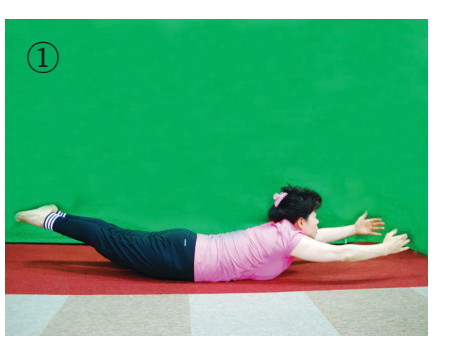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도록 내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라. 나의 정신건강에 좋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두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 산다는 것이 곧 수양이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즉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이다.*

주의 요가교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동시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행사가 가장 많은 가정의 달이라서, 황금연휴의 달이기도 하다. 화창한 날씨에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마음도 명랑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서 감사의 마음도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 내가 혹시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았다면, 아름다운 계절 이 순간부터 훌훌 털어버리고, 요가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건 어떨까요?

상하체 근력 강화
효능① ②. 전신을 신전시켜 가슴 확장으로 심폐기능을 활발하게 함. 탄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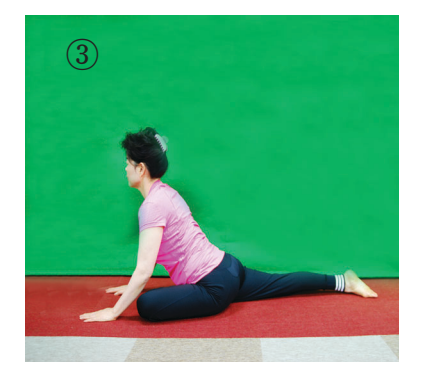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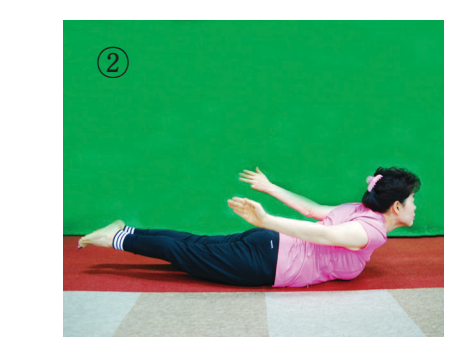


는 힙업 가능. 견갑골을 모아주었다 퍼주므로 척추 주변 기립근 강화에도 효과적. 다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동작①. 엷드린 자세로 양다리나 두 팔을 쭉 펴준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만 두고 상 하체를 위로 끌어 올린다. 복부와 힙에 힘을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②. 1번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젖혀서 양팔을 뒤로 뻗어 멀리 보낸다. 10초 유지,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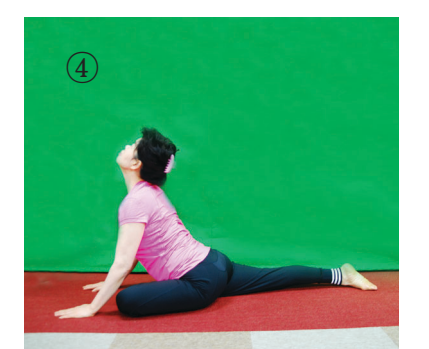
척추기립근 골반근육 강화
효능③ ④. 목주름 예방, 가슴 확장으



로 가슴선 자극,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척추를 튼튼하게 함. 골반주위 혈액순환에 도움.

동작③. 앉아서 왼쪽 무릎은 접고, 양손은 가슴 앞에 댄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편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가슴을 들어 상체를 끌어올린다. 시선은 앞을 본다. 10초 유지, 양쪽 각 3회.

동작④. ③번 자세에서 고개를 젓혀 상체를 후굴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 3회.*



프로그램 설명과 적절한 멘트가 빛난 사회자 김갑용 승사



무궁화 관현악단의 '이제그대로'는 항상 들어도 같적이다



무궁화 합창단의 은혜스러운 합창



정영만 승사의 웅변과 독창



아버이날 행사 인류의 아버지 구세주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 관현악단의 '이제그대로'는 항상 들어도 같적이다



무궁화 합창단의 은혜스러운 합창



튀지 않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배경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아름다운 화관무의 조화에 모두 매료되다(해동 여청).



대구제단 나준경 책임승사와 성도가 함께한 무대였다



부인 연합회의 합창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진혜제단의 합창



성도님들의 관람하시는 모습

허만욱 승사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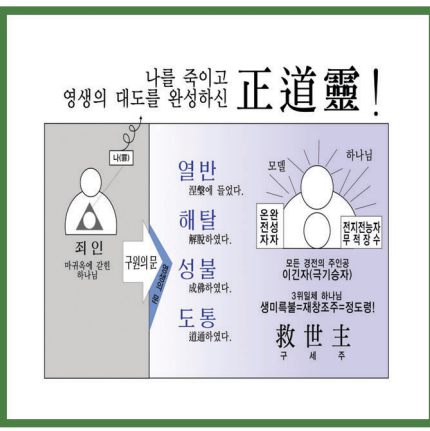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출현하셨는데 눈 뜨고도 못 보니 안타깝도다!

무궁무진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품은조화를 임의로 구사하시는 경이로운 힘을 겸비하신 무적장수 '밝은 별(熙星)님' 그는 20세기 말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는 무섭도록 완벽한 신의 역사이므로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바로 진리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비리(非理)를 가차없이 타파하고 그늘없이 밝고 환한 인간의 분향을 회복하려고 나타나신 천사이시다.

동방 나라 모퉁이 땅에서 해성처럼 나타나신 구세주 정도령! 나를 죽이고 영생의 대도(大道)를 완성하신 정도령. 이분을 가리켜서 열반에 들었다. 해탈하였다. 성불하였다. 도통하였다. 라고 한다. 이분이야말로 부활자요 순교자요 증생자요 완성자요 온전자요 극기승자요 중성(中性)의 회복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생미륵불이요 진지정능자요 무적장수인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요 동시에 모든 경전의 주인공이다. 재창조주요 신천신지(新天新地)

의 개척자인 구세진인(救世眞人)이 시며, 새 역사의 선두주자이신 모델 하나님이다.

격암유록에도 "天授大命(천수대명) 似人而不人(사인불인사)인진인" 즉 이분은 하나님의 종대 한 사명을 받은 분으로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마치 갈나무와 같이 감정이 없는 이긴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격암유록 말운론에는 "似人而不人天神降(사인불인천신강)"이요, 승운론에는 "聖人出(사인불인성인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토록 희대미문(稀代未聞)의 명인(名人)이라 감히 접근하기조차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직접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시온성의 처녀들이 있으나, 이들이 분명히 삼대적덕지가(三代積德之家)의 존귀한 자손들이요 분명하다. 그들을 위해 이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변함없는 감로이슬로 축복하여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랑법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부산제단 : (051)863-6307 | 마산제단 : (055)241-1161 | 사천제단 : (055)833-7866 | 광주제단 : (062)524-4555 | 神戸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London : (0208)894-1075 |
| 수원제단 : (031)236-8465 | 영도제단 : (051)912-7582 | 진주제단 : (055)745-9228 | 포항제단 : (054)292-5455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関祭壇 : (0832)32-1988 | Piladelphia : (215)722-2902 |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김해제단 : (055)327-2072 | 울산제단 : (052)291-1849 | 순천제단 : (061)744-8007 | 청주제단 : (043)233-6146 | 久留米祭壇 : (0942)21-4669 | | |
| 평택제단 : (031)652-6438 | 충주제단 : (055)544-7464 | 진해제단 : (055)544-7464 | 정읍제단 : (063)533-7125 | 금마제단 : (063)853-6673 | 岐阜祭壇 : (0584)32-1350 | | |
| 이죽제단 : (031)672-6786 | 대구제단 : (053)474-7900 | 영천제단 : (054)333-7121 | 군산제단 : (063)461-3491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